

허공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원범 스님의 가르침

마음이 불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듯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망상을 부리거나 활짝여 괴로움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보다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그 자체가 진리를 깨치는 것이고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바른 실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실천방법에는 육바라밀 팔정도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국토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회(이웃)의 은혜등 사은혜(四恩惠)를 알고 보답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가지 은혜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효를 강조한 부처님은 아버지인 정반왕이 세상을 하직하자 손수 그 상여를 땀과 함께 옮겼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 '자식은 왼쪽 어깨에 아버지,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그 큰 수미산(須彌山)을 백번, 천 번 돌더라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애는 한이 없습니다. 이 자애에 대하여 마땅히 따르는 것이 보은(報恩)입니다.

고사(古史)에 보면 어머니의 자식 생각을 원수에 비유합니다.

진나라 환온의 한 머슴이 상현을 지나다 강가에서 원숭이가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강을 따라 백리나 되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원숭이가 마침내 아기 원숭이가 실려있는 배 위로 뛰어오르다가 그만 기절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어머니 원

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모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부모의 열가지 큰 은혜는 첫째, 뱃속에서 열달 동안 길러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해산할 때에 괴로움을 받는 은혜입니다. 셋째, 출산시 3말 8되의 피를 쏟아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고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은혜입니다. 넷째, 좋은 것을 골라 먹여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섯째, 기르실때 밤낮으로 젖은 자리를 가려 놓히는 은혜입니다.

생활 자체가

진리 깨치는 길

공부하지 않으면

'바른 것' 알 수 없어

부모 은혜 갚는 일

가장 먼저 해야

여섯째, 8십 4말의 젖을 먹여 양육하신 은혜입니다. 일곱째, 옷을 세탁하여 길러준 은혜입니다. 여덟째,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항상 근심하는 은혜입니다. 아홉째, 자식을 위하여는 약한 죄도 지을 정도로 깊고 자상한 은혜입니다. 열 번째, 죽을 때까지 베풀고 연민의 정을 가지는 은혜입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부모님에 대한 참다운 보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로 인하여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고, 키워졌음을 안다면 부모를 받들고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은혜를 알고 다음으로 할 일은 청정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千尺絲綸直下垂(천척사문직하수)
一波羅動萬波隨(일파재동만파수)
夜靜水寒魚不食(야정수한어불식)
滿船空載月明歸(만선공재월명귀)

천척의 누싯줄을 아래로 드리우니 한 물결이 일어나자 만 물결이 뒤따른다. 고요한 밤 물 차가와 고기 물지 않으니 배에 가득 허공 실고 달빛에 돌아오다.

<금강경 아부송(金剛經 治父頌)에 나오는 중국 송나라 때의 고승이었던 아부 도천(治父 道川) 스님의 시입니다. 30년전 글을 써서 보은정사 법당 주련으로 달았던 참 좋은 내용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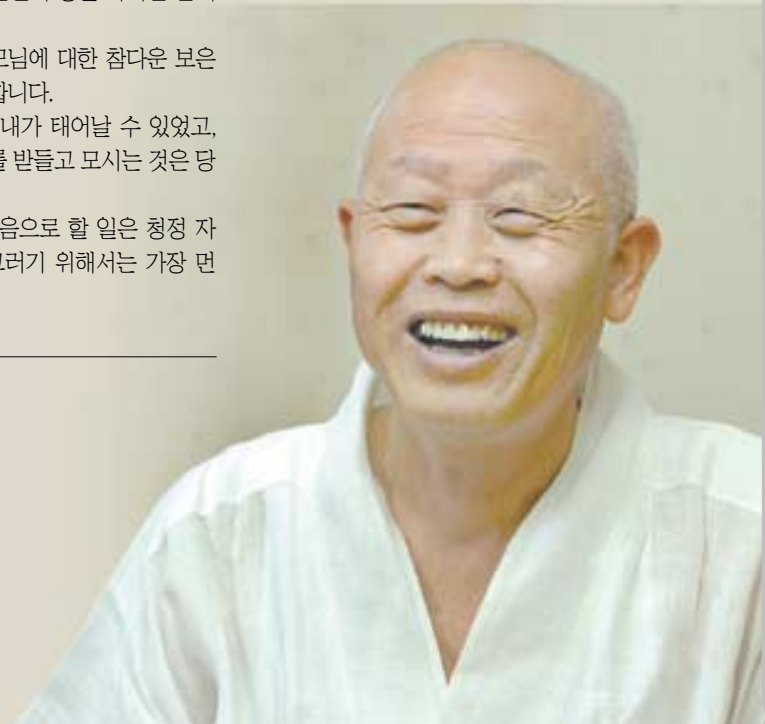
천척의 누싯줄은 바로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누싯바늘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경계에 마음 한번 빼앗기면 천만 번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속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 내 마음 속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여 번뇌가 잡자버리면 천만 경계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대단합니다. 물고기 대신 밝은 달을 신고 왔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 이런 허공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으면 합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1>



착한 일 하고도 화를 낸 남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팔다리가 다 베어도 화를 내지 않는 인육선인의 교훈이라든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내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쉽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보면 부처님이 아니고서야 불뿔 불뿔 치솟는 분노를 참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를 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치솟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일만큼 참기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마음을 일으킨 한 남자가 도처를 부처님과 승단의 스님들을 모두 초청하여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집에 부처님과 천 명이 넘는 스님들이 몰려오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손수 스님들의 밥상에 음식을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그날 아침에 하릴이면 미리 죽을 먹어서 속이 든든하였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있던 스님들은 "조금만 주시오" "조금만 주시오"라며 자꾸만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좀 서운해졌습니다. "스님, 마음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공양이라서 조금만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만 사양하지 마시고 맘껏 드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꼬웠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떠나자 집에 홀로 남은 남자는 곰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오늘 한 것이 잘한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돈과 정성을 쏟아 붓고도 화를 내고 심술을 부렸으니 이익은커녕 해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는 불현듯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부처님 계산 곳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아,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후회합니다. 저는 오늘 참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불쾌해하며 심술을 부리고 스님들을 모욕하였으니 복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은 복된 일일까요, 복되지 않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대가 오늘 승단을 초청하던

그날 아침에 하릴이면 미리 죽을 먹어서 속이 든든하였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있던 스님들은 "조금만 주시오" "조금만 주시오"라며 자꾸만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좀 서운해졌습니다. "스님, 마음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공양이라서 조금만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만 사양하지 마시고 맘껏 드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드시든지 가져가서 드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남자는 불쾌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발우에 넘치도록 음식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60년대 어린이 법회 개설 ... 새싹교 개척자

원범 스님은 해인사에서 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처님 정법을 얻었다는 각오로 아침저녁으로는 참선을, 낮에는 염불 정진을 했다. 스님은 1960년대 여수 향일암에서 이미 어린이법회를 개최했다. 이런 인연으로 1970년대 석주 스님, 안병호, 윤문스님 등 몇몇 지도자들과 대한불교청년교 회연합회 운영에도 참여했다. 스님은 또 대전지역에서 교도소법회나 소년원법회를 계속하였으며, 1993년 국제적 행사였던 대전 EXPO(엑스포) 당시 불교관을 운영하고, 다도시연회를 열어 불교를 알렸다.

www.webtbm.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051)505-2434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위패, 봉투, 등포, 인등포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장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종무행정의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입력 ②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③ 용지 3중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중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중세트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만아심경
 - 인정
 - 청빙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신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합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법인
 - 12. 삼인
 - 13. 삼학
 - 14. 신도오계
 - 15. 사성제
 - 16. 사십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패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